

아침세평

박병훈

특목브레인심리발달연구소 대표



달력 한 장만이 외롭게 을사년 한 해를 붙든 채 나무끼고 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목전에 두고 있으나 금년 한 해는 난세였다.
‘변동불거’(變動不居)의 사회였다.
변동불거는 주역에서 따온 것으로 ‘변하고 움직여 머무르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변동불거를 올 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한 교수신문은 우리사회가 거센 변동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고 불확실한 시대에 안정과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시대적 메시지를 상징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같은 사회를 상징이나 하듯 평화의 왕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는 다르게 우리 사회의 금년 한 해는 모순으로 가득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 일터로 나갔다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고 가족들의 눈가에 깊이 배인 상처를 남긴 채 눈물로 돌아왔다.
이런 일은 도처에서 일어났다. 이름 모를 수많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났다.
자신의 나라보다 더 나은 삶을 찾아 코리언드림을 꿈꾸면서 한국으로 이주한 이주민들 또한 죽음과 차별을 마주

문 밖에 서 있는 아동그룹홈

하고 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으나 정답을 강요하면서도 맞출 수 없도록 출제된 불수능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든다. 수능은 모순이 너무 많이 드러나 폐기해야 할 것임에도 엄연히 존재하는 괴물이 돼 가고 있다.
개천에서 용나게 했던 교육은 사라졌다. 계층 이동의 통로였던 교육은 양극화와 결합하여 부모의 경제력과 비례하는 계층 세습의 도구로 전락해 버렸다.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이 국민을 섬기라고 뽑았던 이상한 대통령의 등장은 한국사회를 후퇴시키고 다가를 재앙을 예고하는 숨은 불씨였다.
연말을 정리하면서 사람으로 넘실거려야 할 거리와 계업과 내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망령들을 쫓아내기 위한 정의의 칼날이 대면하고 있다.
한 연예인은 소년 시기에 저지른 한 때의 잘못으로 인해 은퇴를 선언했다. 한 때 세상을 쥐락펴락했던 높은 양반들이 가장 슬픈 표정으로 초체하게 법정을 들락거리며 자기 살길만을 도모하는 모습과 너무 판이하다.
모순은 사회복지현장인 아동그룹홈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내년도 중앙정부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증액 편성됐다. 특히 아동그룹홈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인건비를 20.2% 인상해 아동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 의지를 분명하게 표명했다.
이를 비롯기라도 하듯 광주시는 그룹홈 종사자 인건비에서 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을 무려 26.6%나 감액 편성해 이런 정부의 의지 표명에 찬물을 뿌렸다.
겨우로 가는 정궤이다. 예산의 증가는 단순히 숫자의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아동그룹홈 돌봄체계의 체계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 향상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 아동그룹홈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동일한 자격을 요구받는 다른 아동 시설에 비해 형편없이 낮다. 명백한 차별이다.
이런 불평등한 처우는 아동 그룹홈 종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직업에 대한 회의와 함께 소진, 이직률 증가로 이어져 아동 돌봄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사회복지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 대형 시설 중심의 돌봄 체계에서 탈시설화로 옮겨가고 있다. 아동들은 가족이 나 이와 비슷한 환경이나 지역사회에서 돌봄과 양육을 받아야 한다. 이에 적절한 기관이 아동그룹홈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아동 그룹홈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은 특수교육아동들이 대부분이다.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더욱 전문적이고 혁신적인 사회복지사들이 필요하다.
굶임없는 재교육과 역량강화는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었을텐데도 인건비를 26.6%나 깎았다니 어안이 빙빙할 따름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보건복지부가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게 서로 다른 임금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인건비에 차이가 발생하도록 조장한 행위는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광주시는 아동그룹홈 예산을 원상복구해야 한다. 사람은 큰 은혜는 눈 감쌀 사이에 망각하지만 작은 상처는 돌에 새기듯이 오래 간직하는 존재이다. 모든 일에는 적절한 때가 있다.

기고

박규정

국가보훈부 광주제대군인지원센터 기업협력팀 실무관



뜨거운 태양 아래, 혹은 차가운 눈발 속에서 나라를 대표하는 제복을 입고 오랜 시간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있다.
다양한 팀을 이끌며 조직을 운영하고, 돌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판단하며 위기에 대응했던 제대군인들. 이들은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고 실천 경험을 축적해온 ‘준비된 실무형 인재’들이다.
이제는 이러한 인재들이 사회에서도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각계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필자는 광주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10년 이상 취업상담과 기업협력 업무를 맡아오며 수많은 제대군인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해왔다.
전역 후 새로운 길을 찾는 이들은 기대와 희망을 품는 동시에 불안과 두려움도 함께 안고 있다. 군 경력은 자랑스럽지만, 사회에서는 이를 바로 업무 능력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이 존재한다.
따라서 제대군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과 인식의 변화가 절실하다. 급변하는 고용시장과 기술혁신, 불확실성이 커지는 산업구조 속에서 ‘준비된 인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군 경력! 이제는 사회의 경쟁력이 되다

군에서의 실천 경험은 위기 대응 능력, 조직 관리 능력, 기술 활용 능력 등 실질적인 업무 능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
이러한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보훈부는 전국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해 체계적인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광주제대군인지원센터는 광주·전남·전북 지역을 관할하며 증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취업교육팀은 전직을 준비하는 제대군인들에게 체계적인 상담과 이력서·면접 코칭, 실질적인 취업 연계까지 지원하며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돕고 있다.
기업협력팀은 지역 내 유관기관, 중소기업, 강소기업 등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제대군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있다.
단순한 채용 연계에 그치지 않고, 제대군인의 경험과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기업과 MOU를 체결하며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다. 이를 통해 제대군인의 사회 진출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광주제대군인지원센터는 전남·북 지역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제대군인의 우수한 역량과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를 통해 제대군인 채용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지역 기업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기업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군 경력을 사회 경쟁력

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고, 군에서 습득한 실무 능력과 리더십은 기업 성장의 실질적인 자산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 채용에 앞장서기 위해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운영 중이다. 일정 기준 이상으로 제대군인을 고용하고, 근무여건 개선과 고용 유지를 위해 힘쓴 기업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 기업에게는 장관 표창, 인증패 수여, 홍보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기업 입장에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함과 동시에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제대군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널리 퍼지고,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제대군인들이 새로운 사회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광주제대군인지원센터는 앞으로도 군 경력의 사회의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대군인의 전환기를 돕는 버팀목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지역 산업체와 협업을 강화하고, 제대군인의 전문성과 강점을 반영한 채용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제대군인의 경험과 역량을 열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제대군인의 능력과 노력이 사회 곳곳에서 빛날 수 있도록, 그들이 새로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각계의 협조와 응원이 절실하다. 군 경력, 이제는 사회의 경쟁력이다.

기고

장미영

광주남구가족센터장



드라마를 보는 즐거움 중 하나는 작가의 멋진 대사를 만나는 일이다.
낭만닥터 김사부의 한 장면에서 김사부는 본원 감사에게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왜 사는지는 알고 살아야지 않냐”고 말한다. 그의 말처럼 ‘왜 사는가’를 아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이유 없이 살아가는 삶이 과연 온전할까. 어떤 사람들은 ‘왜’보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목적과 방향을 모른 채 좋은 삶의 방식을 찾는다는 것이 가능할까. 그저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
19세기를 대표하는 문호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의 단편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는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낭만닥터 김사부

〈수라트의 커피하우스〉, 〈세 가지 질문〉 등 인간의 본질을 묻는 작품들이 실려 있다.
이 책에서 톨스토이는 미하일이라는 인물을 통해 “사람은 사람으로 산다”고 말한다. 인간은 결국 사람하기 위해 태어났으며, 사랑을 하기 위하여 살아간다는 메시지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마음의 움직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2024년 12월 27일, 연합뉴스는 마음 따뜻한 소식을 전했다.
완주군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앞에 10kg짜리 백미 60포대, 총 600kg이 놓여 있었고, 출근하던 직원이 이를 발견했다.
쌀 위에는 “아직도 힘들고 외롭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많다. 출고 힘든 이들과 동행해 달라”는 손편지가 놓여 있었다. 이름을 남기지 않은 ‘기부천사’는 우리 주변이 생각보다 더 따뜻한 곳임을 보여준다. 이런 미담이 이어지는 사회는 분명 행복한 사회다. 그리고 이 나눔의 순간에 가장 큰 행복을 느낀 사람은 아마도 그 익명의 기부자일 것

이다.
에스콰이어에서 효민은 다양한 빛깔의 사랑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해진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랑을 하는 것이고, 자신이 송무팀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가 그 사랑을 지켜주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한 삶이 다양한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효민이 변호사 일을 하고 싶은 이유이고, 우리가 세상을 사는 이유이다. 나눔은 여러 빛깔의 사랑 중에서 가장 반짝이는 빛깔 중의 하나이다.
겨울이다. 추운 사람에게 모진 계절이다.
세상은 항상 사람으로 충만해야 하지만, 유독히 사람이 더 절실한 시간이다. 〈왜 태어났니〉라는 생일 축하 노래가 더 심하게 가슴을 때리고, “같이 좀 삼시다”라는 드라마 대사가 더 아픈 시간이다. 내가 가진 것이 많진 않긴 나눌 필요할 시간이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나만큼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사는 이유일 것이다. 우리 왜 사는지는 알고 싶다.

사설

신안군 ‘햇빛·바람연금’ 전국으로 확산된다

신안군의 ‘햇빛·바람연금’이 화두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제도의 전국적인 확산을 주문하면서 부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안군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려면 주민 몫으로 30%가량 의무 할당하고 있지 않느냐”며 “아주 모범적 형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전국의 군은 전부 인구소멸 위험지역인데 신안군은 햇빛 연금 때문에 인구가 몇 년째 늘고 있다”며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 속도를 빨리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도 내년부터 신안군을 모델로 한 ‘햇빛소득마을’의 전국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마을 공동체가 주도해 마을 내 유휴부지, 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해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그로부터 나온 수입을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이를 위해 농림부, 기후부, 한곡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이 참여한 범정부 추진단을 구성해 초기 투자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재정·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햇빛연금은 신안군이 2018년 10월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주민공유제’를 말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을 사업자와 주민이 나누는 게 주 내용이다. 기존 발전사업자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이 개발이익에 참여하는 혁신적 모델이라는 점은 특별하다.
2021년 4월부터 전국 최초로 지급을 시작한 햇빛연금(태양광발전)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며 매년 급성장하고 있다.
지난 2021년 21억원을 시작으로 2023년 100억원을 달성한 데 이어 지난 10월에는 누적 수익액 300억원을 돌파했다.
분기별로 1인당 10만원에서 68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소비가 지역 상권으로 연결되며 지역상권 매출 증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매년 감소하던 인구도 2023년부터는 2년 연속 증가했다. 올해 연금 지급 대상자도 군민의 49%에 달하는 1만8997명으까지 확대됐다. 2028년 완공 예정인 390M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소까지 가동돼 바람연금까지 지급돼 신안군민 100%가 연금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햇빛·바람연금이 전국화돼 지역소멸 위기에 빠진 전국의 모든 군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길 바란다.

혁신도시 빈 상가 임차료 지원, 성과 거둬야

나주시가 빛가람혁신도시의 빈 상가의 임차료 지원에 나선다.
상가 공실 문제 개선과 인공지능(AI) 등 정보기술기업의 유치와 성장을 위해 혁신도시 내 입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임차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한 것이다.
대상은 연 300만원 이상의 비주거용 사무실을 임차한 기업에 한하며 선정된 기업에는 연 임차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최대 2년간 지급키로 했다.
특히 기업 집적 효과를 높이고 기술 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략적 발굴·유치기업, 관외 이전기업과 혁신도시 상가 공실을 최다구역인 빛가람행정복지센터 인근 입주 기업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고 한다.
사실 나주혁신도시의 빈상가 문제는 심각하다.
한국부동산원이 올 1분기 조사한 이 곳의 집합 상가 공실률은 42.23%에 달했고 2분기 조사에서는 37.05%로 소폭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이에 앞서 나주시가 전문업체에 의뢰해 지난 2023년 7~8월 등 달간 전체 상가 6977실을 방문 조사한 결과로 상가 평균 공실률이 43.4%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기관 직원의 낮은 지역 정착률, 주말마다 텅 빈 도심, 생활SOC의 부족, 수요 대비 과잉 공급된 상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경기가 해마다 악화돼 소상공인들은 관리비 체납과 단전·단수 등의 위협에까지 시달리고 있다.
물론 나주시도 그동안 이 곳의 빈 상가 활용 모색을 위해 전력을 다해 왔다.
최근 도시계획 수립 이후 12년 만에 지구단위계획 정비안을 확정하며 규제 대폭 완화라는 처방전을 내놓았고 전국 최초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온라인 공실박람회’도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효과는 미미하다. 여전히 침체된 지역경기와 늦어지는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을 고려했을 때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긴 힘들다.
이 때문에 정부와 광주시·전남도의 근본적인 활성화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또 특색있는 콘텐츠 개발 등 매력있는 상권조성을 위한 상인들의 자구책 마련도 절실한 시점이다.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 경리장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10	는 설 실 370-72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경 제 부 370-7020	임 원 실 370-700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사 회 부 370-7030	총 무 국 370-7093	광 고 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문 화체육부 370-7234	광 고 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978-709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편 집 부 370-7082	독자관리국 370-708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사 진 부 370-7050	서울지사 ☎978-7090		